

출판계에 바라는 한 에이전트의 소망

양원석 | 에릭양 에이전시 대표

많은 해외 저작물이 번역돼 우리 독자들에게 소개되고 있다. 기획자·번역자들과 더불어 국내 여러 에이전시들이 그 일에 일정한 역할을 맡고 있다. 에이전시는 한국 출판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수많은 '작은 손'들 가운데 하나다. 어떤 사람들은 에이전트를 '미다스의 손'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더러운 손'이라고도 부르는 모양인데, 솔직히 누가 황금의 손이고 누가 더러운 손인지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다.

저작권 에이전시는 과연 출판계에서 어떻게 자리매김되고 있을까 생각해 본다. 출판사들과의 빈번한 실무와 협력, 친교의 모양새를 보면 분명 출판계라는 울타리 안쪽에 있는 모양이다. 하지만 어떤 출판유관단체에도 끼워주지 않으면서 출판사들로부터 바퀴 취급을 받기도 한다. 수입 일변도의 저작권 중개 현실, 외국 저작권자들한테서도 수수료를 받는 등 업체 자체가 사실 우리 '출판 나라'의 시민권에 대한 묘한 자격 제한으로 작용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다. 종종 일어나는 해외 베스트셀러에 대한 과잉 경쟁 과정에서도 반드시 에이전트들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자주 술 자리의 안주거리가 되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출판사들의 무리한 계약 추진은 문제삼지 않으면서 말이다.

에이전트는 출판계의 침체에 대해 가슴을 졸인다. 그리고 되도록 많은 출판사들의 부흥을 회구한다. 그 이유는 첫째, 우리 나라 출판사들의 성장과 그 구성원들의 행복, 우리 사회의 문화적 풍요와 생산적인 다원화를 진심으로 간절히 원하기 때문이며, 둘째는 그래야 해외 저작권 비즈니스도 더 활발해지리라는 '장삿속' 때문이다. 이 첫째 이유와 둘째 이유의 순서가 바뀔 게 아니냐는, 아니 둘째 이유가 모든 게 아니냐는 야유도 있을 법하다. 그러나 무슨 말을 하겠는가. 이 어지러운 시장통에서 충분히 위선적인 고상한 동기뿐 아니라 이윤 동기도 분명히 있다고 밝히는 솔직함에 스스로 건배하는 것 외에는, 참으로 이해가 안되는 유통 구조 속에서도 출판사들이 베스트셀러를 만들어낼 때마다 에이전트는 영업자·기획자·편집자들에게 진심으로 찬사를 보내고 있다는 것도 이 참에 말해야겠다.

한국 출판계에서 에이전시가 차지하는 위상에 대한 다른 평가를 원한다. 그리고 훌륭한 해외 저작물들의 소화를 통해 우리 문화의 내구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 애쓰라는, 기초적 문화 교류의 다리 역할을 하라는 채찍질을 원한다. 좋은 책, 팔릴 책을 내고 싶어서 저작권 계약을 하는 마음과, 외국 출판사에 로열티를 주는 것은 외화가 빠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 주지 않거나 늦게 주거나 적당히 액수를 낮춰 잡아서 주자는 마음 사이의 괴상한 갈등을 '중재'해 줄 것을 에이전시에 바라지 않기를 원한다.

외국 출판사들의 국내 출판시장 직접 진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국내 에이전시의 해외 커넥션과 정보를 심분 활용하고, 유통구조를 혁파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판매 및 재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며, 신뢰할 만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로열티를 투명하게 정산하는 것이 진정한 경쟁력이라고 말하면 지나친 것일까? ●

통권 제264호 | 1999년 9월 5일 발행

발행인 김낙준

편집이사 임홍조

편집자문 김정란 이정우 임지현

편집장 김지원

기자 오원진 박천홍

이현주 김연수

사진 한준호

편집디자인 정병규디자인·서정희

출판저널·박은정

업무부장 윤동호

업무·광고 이희천 김동필 천창환

등록 1987년 6월 9일 - 다 435

발행처 (재)한국출판금고

732-1434 · 5

인쇄처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이일수

출판저널 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 · 2 | 편집

732-1433 | 업무·정기구독문의

FAX 722-1174

E-mail book732@chollian.net

하이텔 chulpan

천리안 book732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치 구독료 4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닥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붙임하거나

국민은행 계좌번호 023-01-0219-936

(예금주:출판저널)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